

극심한 기상이변 온실가스 감축부터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장맛비가 가끔 내리기도 하지만 찜내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시때때로 휴대폰에 찍힌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혹은 호우주의보는 우리가 극단적인 날씨, 즉 기상이변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원한 냉방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보다 농민들과 야외에서 일해야만 하는 이들, 에어컨 없이 살아야 하는 빈한한 이들의 고통이 더할 것이다.

얼마 전부터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기후위기(Climate Crisis)로 나아가 기후붕괴(Climate Breakdown)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의 시대는 가고 지구가열화(Global Heating), 혹은 지구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지구가 점점 가열되어 지글지글 끓고 있다는 뜻이다. 수년 전 한 청소년 기후

운동가는 '우리 집(지구)이 불타고 있다'고 외쳤다. 현재 진행형인 기후위기의 적절한 표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각처에서 들려오는 기상이변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기후붕괴와 지구열대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듯한 위기의식을 느낀다.

유럽연합의 기후 기상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는 지난 7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13개월 연속해서 '역사상 가장 무더운 달'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3년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해'였고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4년 기록갱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폭염이나 가뭄, 홍수 등 기상재난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금년 들어 지금까지 아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처에서 섭씨 40도를 넘어 50도까지 육박하는 폭염이 강타했다. 얼마 전 사우디의 이슬람 하지 성지순례 중에 1300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50도 폭염으로 사망했다. 섭씨 50도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극심한 기상이변은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야기하고 정치·경제·사회는 물론 생태계와 환경에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식량생

산의 가장 큰 위협을 초래한다.

폭염·가뭄·홍수 등은 농업에 직격탄이다. 작물 수확의 실패는 식량 부족을 초래하고 시장에서 식량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지구촌의 빈곤과 기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전염병 발생의 주된 요인을 제공한다. 기상이변은 가난한 나라, 가난한 지역사회에 더 치명적이다. 맑은 물과 공기, 식량이 결여된 지역은 영양결핍과 각종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폭염·가뭄·홍수 등 기상이변에 의한 재난이 더욱 빈번하고 고강도로 찾아온다면, 피해는 확대재생산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태가 실제로 기후붕괴, 지구열대화 시대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말한 '기후지옥'이다. 그 길을 갈 수는 없다. 재난을 초래한 '범인'을 색출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실 국제적으로 범인은 밝혀냈다.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가 그것이다. 화석연료를 퇴출시켜야만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그러나 퇴출 조치가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구촌 일원으로 한국도 광주나 전남과 같은 지역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당장 올해 말부터라도 화석연료를 퇴출 중이고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있다는 반가운 뉴스를 들어야 한다.

社說

기대되는 광주·전남농협 '아침밥 캠페인'

정부·지자체·민간도 동참해야

전남농협본부가 29일 전남도교육청과 '아침밥 먹기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농협본부도 이날 우리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아침밥 먹기는 두뇌발달과 건강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쌀에 대한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아침밥을 챙겨 먹는 '아침밥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농협의 도전이 신선하다.

쌀은 5000년을 이어온 주식이면서 농민들의 주요 소득원이다. 하지만 이런 쌀이 소비 감소와 수입 등의 영향으로 최근 흉년을 받고 있다. 울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2019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루 쌀 소비량이 155g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한 끼에 먹는 쌀의 양 또한 50g 안팎으로 밥 한 공기(쌀 100g)의 절반에 불과한 셈이다. 주식으로서 쌀의 위상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사례다.

속사정을 따져보면 이런 쌀 소비 감소는 더욱 암울하다. 코로나 이후 쌀 소비량 감소가 주춤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의 추세라면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쌀 소비 감소세는 별반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과자류와 곡물 가공품 등 쌀의 대체재 증가로 쌀 이외 다른 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쌀의 위기가면서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위기다. 아침 결식 비율이 높은 학생층과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쌀 소비량 감소도 위협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의 건강을 돌보고, 남아도는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내 쌀 시장을 살리고 농업 경제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의미도 크다. 이번 협약이 교육청과 농협은 물론이고 정부와 자치단체, 민간이 동참하는 적극적인 쌀 소비 확대운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쌀은 한 끼의 식사를 넘어 한민족이 지켜야 할 훈이면서 정신이다.

전동킥보드 안전 확보 노력 절실하다

안전모 미착용 사고 잇따라

최근 광주 지역에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타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A씨가 신호에 맞춰 출발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 20일 오전 5시3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교차로에서 휴가를 나온 군장병인 20대 남성 B씨가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통근버스가 충돌해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지난 3월 18일 오후 11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0대 대학생 C씨가 개인용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숨진 운전자들 대부분이 10~20대였고,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벨트, 에어백 등을 갖춘 자동차와 달리 전동킥보드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보니 관련 교통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광주경찰청이 집계한 전동킥보드 등 관련사고 건수는 2019년 18건에서 2020년 38건,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1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 등이 도심의 흉기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오죽하면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키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이용객 다수가 교통법규에 취약한 10~20대라는 점도 문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원동기 면허가 있는 16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 '안전모 착용 필수'와 '승차 인원 1인'라는 제한도 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정부나 지자체가 전동킥보드 도입 당시, 안전장치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이 높아지자 부랴부랴 제도개선에 나서는 '늑장 대응'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교통법규 교육 및 단속 강화, 안전한 도로망 확충은 곧 '안전'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언제까지 개인 책임으로 떠넘길 일이 아닌란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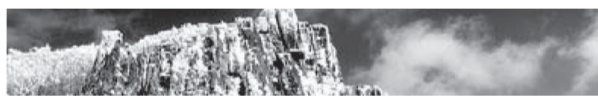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세상

최경주가 28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커누스티의 커누스티골프링크스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 시니어 오픈 챔피언십 정상에 올라 트로피를 들고 입 맞추고 있다. 최경주는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AP/뉴시스

서석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24시간 동안 사용자에 모바일로 필요한 앱을 제공하겠습니다."

10여년 전, 인터넷 업계에는 다수의 작은 기업들이 모여 커다란 비즈니스 플랫폼을 형성하는 '벤처연합 모델'이 급부상했다. 사용자의 24시간을 함께하는 '종합 모바일 포털'을 추구한 '엘로모바일'도 대표적인 벤처연합군 형태의 회사였다. 2년 만에 70개사를 인수·합병할 만큼 공격적인 M&A를 진행한 엘로모바일은 투자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엄청난 투자를 이끌어내며 출범 1년 만에 쿠팡 다음으로 대한민국 2번째 유니콘 기업에 등극했다.

하지만 영광의 시간은 짧았다.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계열사만 140여 곳에 달할 정도로 몸집을 불렀지만, 엘로모바일은 이 수많은 계열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진 못했다.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한 과도한 적자, 계열사 간 갈등으로 엘로모바일은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렸다. 몇 해에 걸쳐 공중분해 된 엘로모바일은 현재 회사의 존폐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 정산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큐텐 그룹의 상황을 보고 엘로모바일을 떠올린다. 큐텐은 지난 수년간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미국의 WISH까지 인수하고 나섰는데, 역시 목표는 나스닥상장이다.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잇따라 영업손실을 내기 시작했음에도 눈감은 채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상장을 위한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정산지연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티몬과 위메프 본

사 앞에 화가 난 소비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구영배 큐텐 대표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사비를 털어서라도 이번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산지연금을 충당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경영 혁신'과 '유럽 시장 공략' 등을 운운하며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2134억원이다. 티몬이 1280억원, 위메프가 854억원인데, 이들이 사태 발생 이후 일부 소비자에 대해 환불을 진행한 액수는 각각 131억원과 43억원가량에 불과하다.

구 대표의 입장문에 따르면 큐텐은 이마저도 '양사(티몬·위메프)의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합계 500억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1500억원이 넘는 차이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6~7월분 미정산금까지 더하면 총 규모가 1조원을 능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 말이 없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올림픽에 잠 못 들고 열대야에 연신 몸을 뒤척이게 되는 여름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큐텐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 입은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올림픽도, 열대야 탓도 아닌 분통함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이번 사태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다"고 말한 큐텐과 구 대표의 사그라들지 않는 욕심이 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낳을지 가늠되지 않는다.

곽지혜 취재1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